

김리아 선교사

5월 선교소식 -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신록의 계절 오월입니다.

삼라만상의 주의 작품이시고 우주이상부터 잡풀까지도 운행하시는 내주 아버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송원교회

오직 예수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 교회

세계 선교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안타까움을 품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을 보내신 교회

뿌리 깊은 영성과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계신

마음껏 자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 된 송원교회입니다.

감사하옵기는

사랑하는 송원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마중물의 건축헌금이

건축에 박차를 가해 외벽공사와 예배실을 완공하게 되어,

이전부터 주의 것 이었으나 그래도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주께 드리며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소서.

아직도 지하실, 화장실, 교실 2개, 식당의 내부 미장과

식당장비와 재봉틀 오버룩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내 주님,

눈을 들어 산을 향해 주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선교지와 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송원교회와

성도님 한분 한분을 세계의 기도의 등불로,

선교기지로 사용하시고 송원교회만 생각하고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